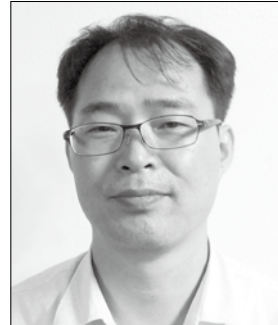


# 노인의 생활환경과 정책과제

*Policy Considerations for the Living Conditions of Older Koreans*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은 노인들에게 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낮은 주거안정성, 생활하기 불편한 주택구조, 주요 시설 부족 및 이용불편 등 다양한 불편요소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안전사고나 범죄피해경험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은 지역사회거주(ageing in place)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 1. 들어가며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 현상은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구성원간 역할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다. 노인 독거·부부가구의 급증에 수반하여 가족간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도움의 교환이 약화되어 왔으며, 과거와 달리 노인들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령후기로 갈수록 환경의 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생활환경은 노인의 환경의존성 관점에서 사회적, 문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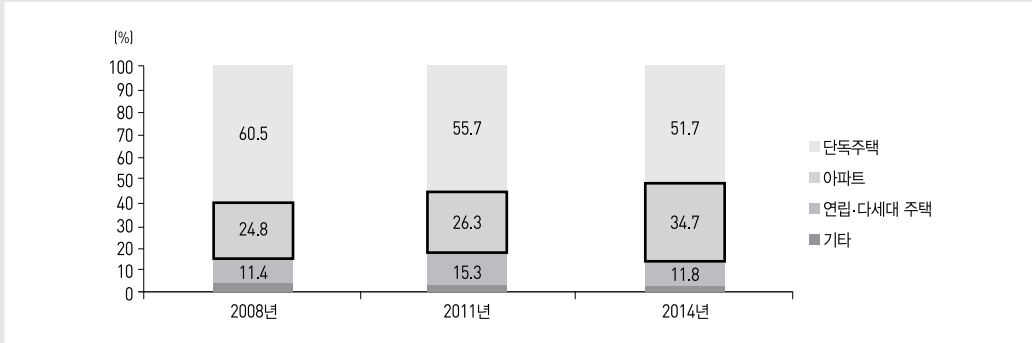
환경 등은 배제하고 생활공간으로서의 물리적 환경에 한정하고자 하며,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 2. 주거 환경 및 지역 환경

### 1) 주거 환경

주택은 노인이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기본적인 장소로서, 주택의 종류에 따라 주택의 구조, 설비, 성능, 환경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노인의 51.7%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아파트 34.7%, 연립·다세대주택 11.8% 순으로 나타

그림 1.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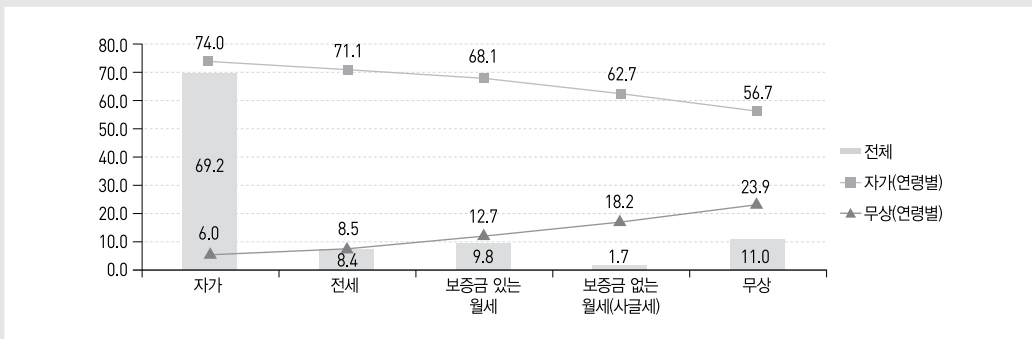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단독주택 거주율이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은 노인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주택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한편,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69.2%가 자가에서 살고 있으며, 무상 11.0%, 보증금 있는 월세 9.8%, 전세 8.4%, 보증금없는 월세 1.7%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의 70%만 주거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연령별 자가·무상 거주 비율 변화이다. 전·월세 유형은 연령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 반해, 자가, 무상 비율은 연령별로 뚜렷하게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자가, 무상을 합산한 비율은 연령군별 차이가 거의 없는데(80.0% 79.6%, 80.8%, 80.9%, 80.6%), 연령이 상승할수록 자가 비율 감소분이 그대로 무상 비율 증가분으로 전환되고 있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자가비율이 낮아지고, 그 외 거주형태가 대체로 증가하는

그림 2. 거주형태



주: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경향성을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경우라면 감소하는 자가비율만큼 전세, 월세, 무상 등 다른 거주형태로 골고루 전환되어야 하지만, 무상비율만 증가하고 전·월세 비율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 만약 노후자금 부족 등 경제사정을 이유로 자가를 처분하는 경우라면,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자가에서 무상으로 바로 전환되는 것은 상속재산의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 후 무상거주 등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노인이 살고 있는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면접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의 제3자적 판단과 노인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조사원의 제3자적 판단을 개입시킨 이유는 노인 본인의 판단에만 의존할 경우 노인주거의 편리도가 객관적 편리성과 무관하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너무 주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조사원이 본 주거의 생활편리도를 살펴보았을 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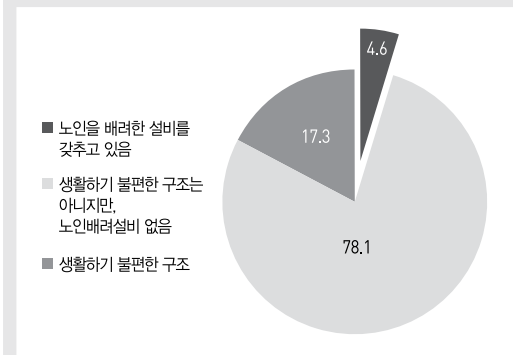
있다는 경우는 4.6%에 불과하며, 생활하기에 불편하지는 않지만 노인을 배려한 시설이 없는 경우는 78.1%이고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인 경우는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를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95.4%로 현재 주거구조는 고령친화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노인 응답자에게 생활하기에 가장 불편한 공간을 물어보았을 때 전체의 55.0%는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계단(15.3%), 화장실 및 욕실(12.5%), 문턱(9.1%) 등의 순으로 생활하기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지역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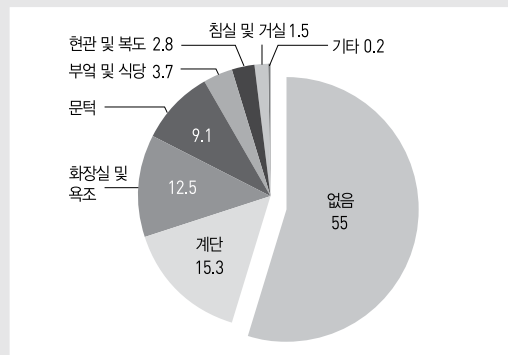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고령친화적인지 여부에 따라 노후생활의 활력이 증진 또는 저하될 수 있다. 특히, 노화에 따라 기동력 저하현상을 겪는 노인들에 있어 주된 생활편의시설과의 공간적 거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의 주요 기관·시설과의

그림 3. 주거지의 생활편리상(조사원)



주: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그림 4. 생활하기 가장 불편한 공간



주: 본인 응답자 10,279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도보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장소는 5분~10분 미만(40.3%),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은 10분~30분 미만(36.3%), 읍·면·동 사무소는 10분~30분 미만(41.6%),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은 30분 이상(65.1%),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은 30분 이상(70.4%), 버스·지하철역은 5분~10분 미만(48.8%) 등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시설은 보편적으로 도보로 30분 이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은 도보로 30분 이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도보 이동시간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의 경우 동부는 걸어서 5분~10분 미만이 45.6%로 가장 높은 반면, 읍·면부는 걸어서 30분 이상이 4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경우 동부는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 39.6%로 가장 높은 반면, 읍·면부는 걸어서 30분 이상이 5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읍·면·동 사무소는 지역과 무관하게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 가장 높고(동부 41.6%, 읍·면부 47.2%),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은 모두 걸어서 30분 이상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종합)복지관 등 동부 64.1%, 읍·면부 60.1%, (종합)사회복지관 등 동부 81.4%, 읍·면부 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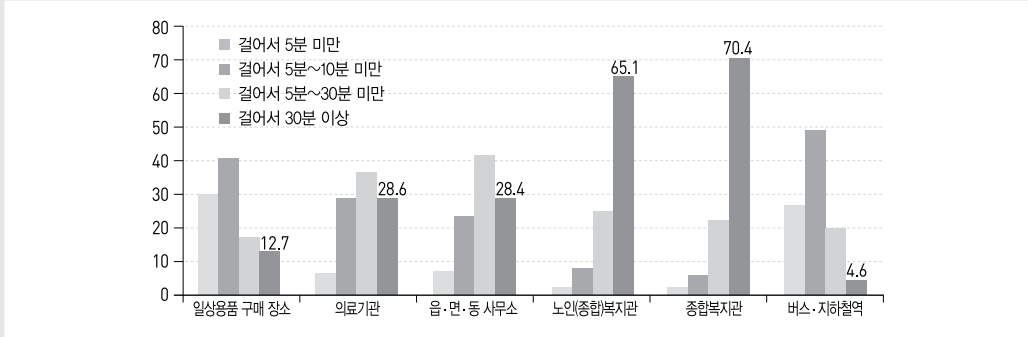
표 1. 노인의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 구분                           |      | 걸어서   | 걸어서       | 걸어서        | 걸어서    |
|------------------------------|------|-------|-----------|------------|--------|
|                              |      | 5분 미만 | 5분~10분 미만 | 10분~30분 미만 | 30분 이상 |
|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 동부   | 34.6  | 45.6      | 16.1       | 3.7    |
|                              | 읍·면부 | 15.2  | 23.1      | 19.6       | 42.1   |
|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 동부   | 7.5   | 33.4      | 39.6       | 19.5   |
|                              | 읍·면부 | 2.5   | 13.5      | 25.5       | 58.5   |
| 읍·면·동 사무소                    | 동부   | 6.9   | 23.2      | 41.6       | 28.4   |
|                              | 읍·면부 | 8.4   | 27.0      | 47.2       | 17.5   |
| 노인(종합)복지관/<br>노인복지회관         | 동부   | 1.9   | 10.8      | 23.2       | 64.1   |
|                              | 읍·면부 | 1.9   | 8.7       | 29.2       | 60.1   |
| (종합)사회복지관,<br>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 동부   | 2.6   | 4.6       | 11.4       | 81.4   |
|                              | 읍·면부 | 2.0   | 6.8       | 25.6       | 65.6   |
| 버스·지하철역                      | 동부   | 0.9   | 2.6       | 10.2       | 86.3   |
|                              | 읍·면부 | 27.4  | 51.2      | 18.4       | 3.0    |

주: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그림 5.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주: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노인의 주요 시설 및 서비스 이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이용률이 10%를 밑도는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로식당이나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는 저소득 재가노인의 결식우려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이용빈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기타 시설·서비스 이용 빈도가 저조한 것은 원거리로 인한 접근성 제약이나 프로그램 부족 등에 기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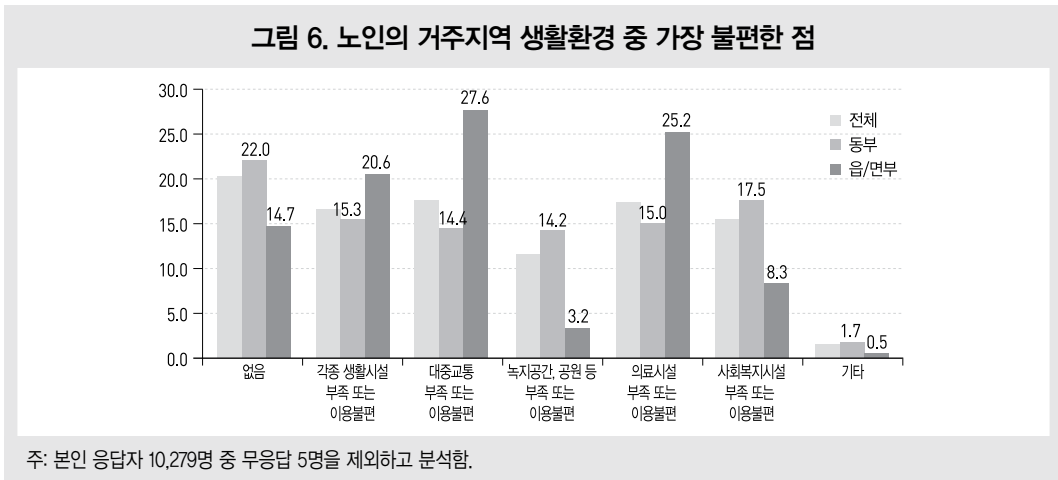
거주지역 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한 전체 응답율을 살펴보면,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응답이 20.2%로 가장 높지만,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불편 17.5%,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17.4%, 각종 생활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16.5%, 사회복지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 15.4%, 녹지공간, 공원 등 부족 또는 이용불편 11.6% 등

표 2. 노인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빈도

(단위: %, 명)

| 구분                              | 전혀 이용하지 않음 | 거의 매일 (주4회 이상) | 일주일에 2~3회 | 일주일에 1회 | 한 달에 1~2회 | 3개월에 1~2회 | 1년에 1~2회 |
|---------------------------------|------------|----------------|-----------|---------|-----------|-----------|----------|
|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 94.9       | 1.5            | 1.5       | 0.8     | 0.7       | 0.1       | 0.6      |
|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                  | 98.5       | 0.3            | 0.5       | 0.4     | 0.1       | 0.1       | 0.2      |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 93.4       | 1.4            | 2.8       | 1.6     | 0.4       | 0.1       | 0.3      |
| 공공 여가문화시설(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등)   | 95.5       | 0.8            | 2.2       | 1.0     | 0.3       | 0.0       | 0.2      |
| 민간 문화시설(백화점·마트·신문사·방송사 등의 문화센터) | 98.6       | 0.2            | 0.5       | 0.4     | 0.1       | 0.1       | 0.1      |

주: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대부분 항목에 대해 비교적 고른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다. 노인 응답자의 79.8%가 거주지역 생활환경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항목이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 생활환경에 불편한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경우는 불편한 점이 없다는 응답이 22.0%로 읍·면부 노인의 14.6% 보다 높다. 동부 노인에게서는 읍·면부 노인에 비해 사회복지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17.5%), 녹지공간, 공원 등 부족 또는 이용불편(14.2%)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대중교통 부족 또는 이용불편(27.6%), 의료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25.2%), 각종 생활시설 부족 또는 이용불편(20.6%)이 상대적으로 불편한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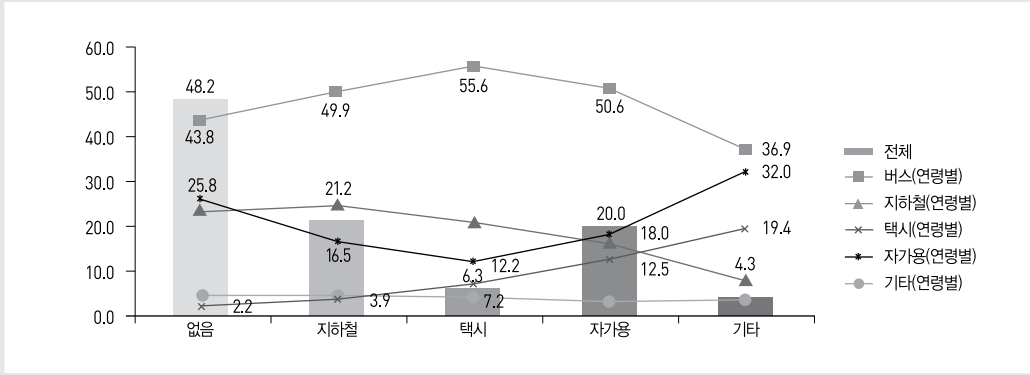
### 3. 외출 및 운전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살펴보면 버

스(48.2%), 지하철(21.2%), 자가용(20.0%)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버스(44.3%), 지하철(27.1%) 순이며, 읍·면부는 버스(60.9%), 자가용(24.3%)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지하철이 없는 읍·면부는 버스가 주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연령별로 살펴보면 역시 버스라는 응답이 가장 높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택시 응답률이 급격하게 높은(65~69세 2.2%, 85세 이상 19.4%) 경향을 보인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높은 운임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중교통수단보다 택시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이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에 대해 살펴보면, 노인의 29.3%는 외출 시 불편한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계단이나 경사 오르내리기(34.1%), 버스(전철)타고 오르내리기(12.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그림 7.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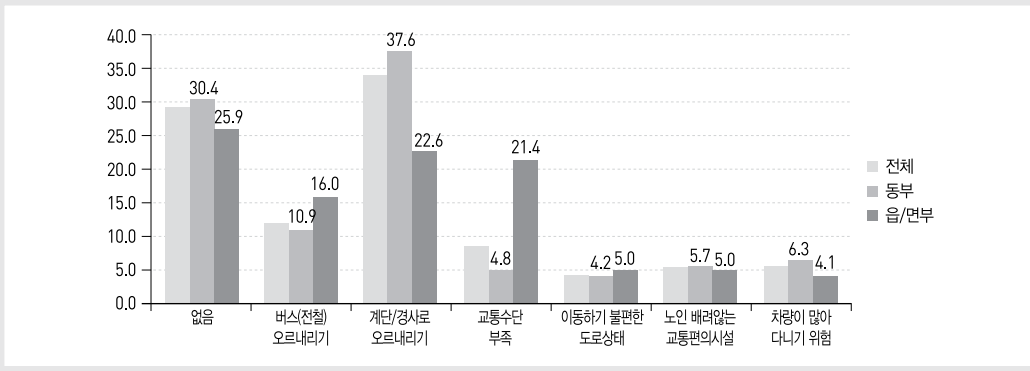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가 37.6%인 반면, 읍·면부는 같은 항목에 대해 22.6%만 응답했으며, 21.4%가 교통수단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동부의 4.8%와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역별 보행·교통 환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즉, 도시지역에는 지하철, 건물 등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계단이나 경사오르내리기가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언급되고 있는 반면, 농어촌 지역은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운행편수가 적고 배차간격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률이 줄어들어(65~69세 41.5%, 85세 이상 20.8%), 고연령일수록 외출할 때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65~69세 27.2%, 85세 이상 43.0%), 이

그림 8.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주: 본인 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항목이 노인들의 외출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장애 요소라 할 수 있다.

노인의 운전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의 16.1%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으며, 8.9%는 과거에는 해보았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 75.0%는 평생 운전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전 실태에는 특성별 약간씩 차이가 있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이 23.7%로 높은 반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3.9%에 불과하고, 평생 한 적 없다는 응답도 91.1%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는 현재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5.3%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평생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8.7%로 높다. 이에 비해 노인부부가구는 현재 운전하고 있다는 응답이 22.4%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이동수단의 필요성이 높지만 자녀 또는 기타가족으로부터의 이동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기 어려운 가구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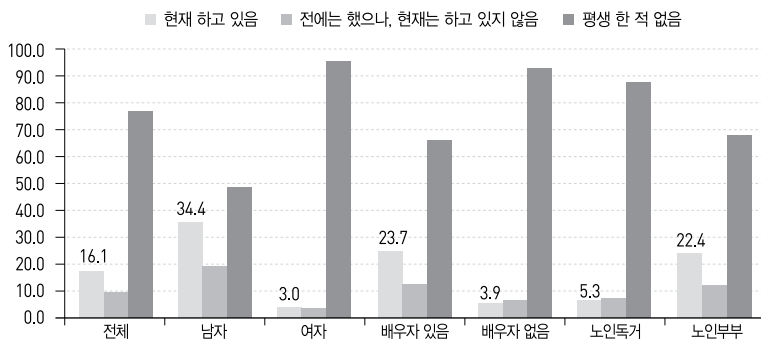
한편, 운전을 그만둔 나이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59.7세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60.5세, 여자노인이 55.5세로 남자가 더 늦게 운전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 4. 안전사고 및 낙상

노인의 안전사고(집안 내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률을 살펴보면 노인의 3.0%가 지난 1년간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범죄피해 경험률을 살펴보면 재산범죄의 경우 0.6%, 사기성 물건구매 0.3%, 보이스피싱 0.2%, 폭력 및 강력범죄 0.1%의 순으로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25.1%가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하였다. 낙상경험자의 지난 1년간 낙상횟수는 2.3회이고 낙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63.4%로 나타났다. 낙상이유와 관련해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갑자기 주저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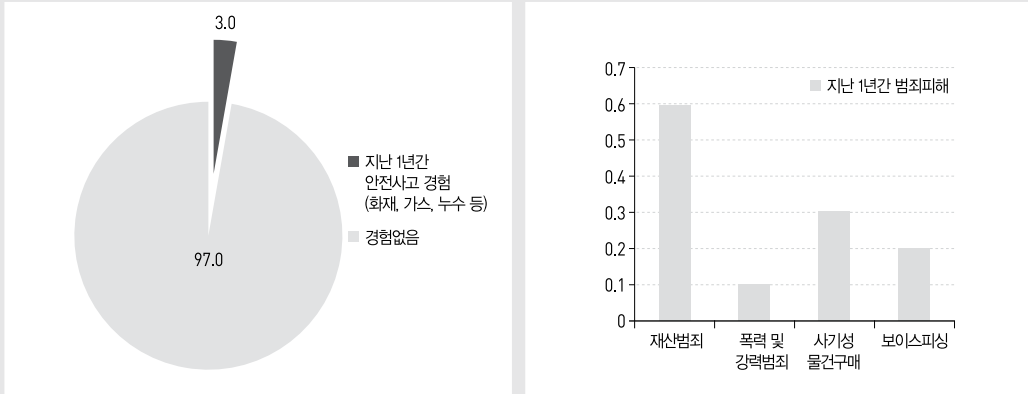
그림 9. 운전여부



주: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그림 10.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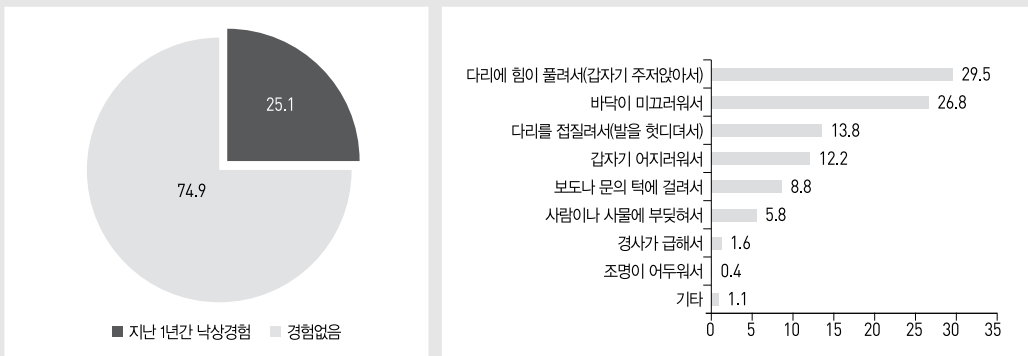
주: 1) 안전사고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범죄피해 경험률은 본인 응답자 10,279명을 대상으로 함.

아서)가 29.5%로 가장 높고, 바닥이 미끄러워서 26.8%, 다리를 접질려서(발을 헛디뎠서) 13.8%, 갑자기 어지러워서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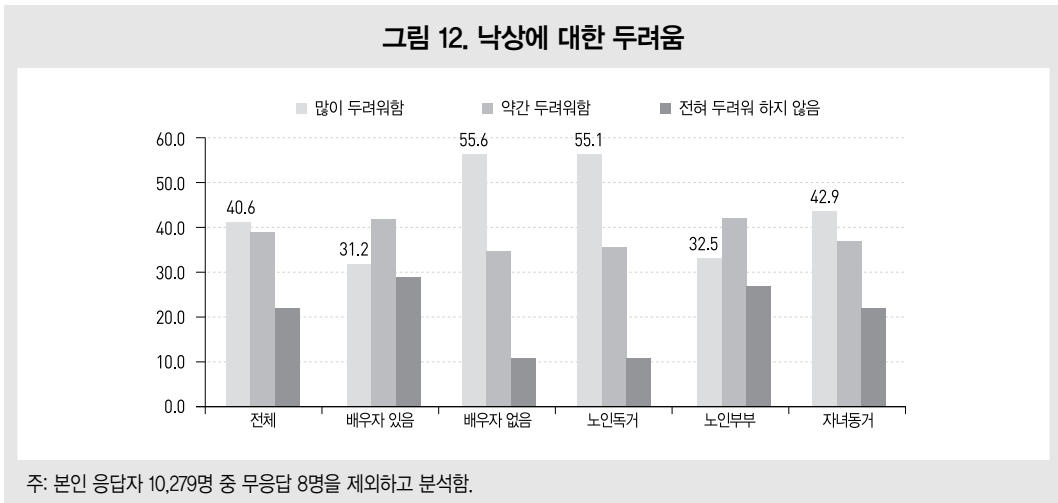
낙상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78.8%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많이 두려워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40.6%나 되

었다. 결혼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 없는 노인이 배우자 있는 노인에 비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배우자 없음 89.7%, 배우자 있음 72.0%).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90.1%), 특히 55.1%는 낙상을 많이 두려워

그림 11. 낙상경험 및 낙상이유



주: 1) 낙상경험은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10,451명을 대상으로 함.  
 2) 낙상이유는 전체 응답자(대리 응답자 포함) 중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는 2,622명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함.



하고 있다.

## 5. 나가며

노인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은 지역사회거주(ageing in place)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본 고에서는 주거실태 및 지역 환경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노인의 이동성과 관련된 외출 및 교통수단, 일상생활 속 안전실태를 정리하였으며,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노인의 절반이상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절반정도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주거내 공간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주거생활 편리도가 떨어지고, 유지관리에 손이 많이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노인빈곤을 OECD 1위에서 보듯 빈곤상태에 놓여

있는 노인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노인 스스로 많은 비용을 들여 불편한 공간을 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집수리 능력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주거내 안전 시설 설치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정내 안전사고와 낙상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신체기능 저하에 직면한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주거공간으로 탈바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환경 개선대책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노인의 70% 이상이 외출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로 겪는 불편은 계단이나 경사 오르내리기, 버스(전철) 타고 오르내리기 등이다. 이미 정부는 2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지하철 승강설비 확충, 저상버스 보급 확대,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등 고령친화적 대중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교통환경의 지역적 범위가 광범위한 탓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 저하에 따라 이동성이 약화되는 노인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환경 개선은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의 다수(78.8%)가 낙상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실제 4명 중 1명은 낙상의 경험이 있다. 낙상은 전반적인 기능상태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80대 이상의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에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시급하다 하겠다.

셋째, 지역간 생활환경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은 농어촌 지역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하기 불편한 공간이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과 외출 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도시 노인에 비해 농어촌 노인이 높은 수준이다. 한편, 농어촌 노인은 대중교통, 의료시설, 각종 생활시설 부족으로, 도시 노인은 사회복지시설 및 녹지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등 지역환경 중 불편사항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거주형태 중 무상 11.0%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의 오명을 안고 있는 상황이며, 빈곤노인들은 노후의 인락한 삶을 즐기기는커녕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고 심지어 일부노인들은 생활고 비관으로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빈곤하지 않아도 될 노인까지 빈곤상태로 내몰리는 경우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무상거주노인을 중심으로 빈곤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무상거주노인의 상당수가 생전 재산정리 차원에서 본인주택의 자녀에 대한 사전증여후 무상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이러한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상속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산보유계층 노인의 빈곤화 억제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노화는 인간의 이동성을 약화시키고, 이동성이 약화된 노인은 주변 환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황으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고령사회 대비차원에서 고령친화도시 등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